

**담당 : 홍보팀 송다혜 사원ㅣ Office : 02)560-4448 ㅣ Mobile : 010-7680-310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배포 일시 : 2025년 8월 8일(금) 18:30 ㅣ 보도 일시 : 2025년 8월 8일(금) 18:30**

**‘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’ 2R 오후조 주요선수 코멘트**

**(노승희, 이세희)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|
| 2 | 기 간 | 2025년 8월 7일(목) ~ 8월 10일(일) |
| 3 | 장 소 | 사이프러스 골프앤리조트 [북(OUT) / 서(IN) 코스] |
| 4 | 주 최 |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, 광동제약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586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31명 |
| 9 | 주요  출전선수 | 윤이나, 방신실, 박현경, 이동은, 노승희, 고지우, 김민선7, 김민주, 이가영  정윤지, 박혜준, 박보겸, 유현조, 김시현, 송은아, 서지은, 고지원, 성유진  강채연, 지한솔, 박성현, 임진영, 현세린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  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  [2라운드] 11시 ~ 17시  [3라운드] 10시 ~ 16시  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노승희 2라운드 중간합계 12언더파 132타(65-67) 공동 2위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113>

**Q. 오늘 경기 소감은?**

보기 없이 마무리해서 기분 좋다. 특히, 아이언 세컨드 샷 칠 때, 거리감을 맞추는 부분에 집중했는데 안정적으로 잘 맞았다. 덕분에 기회를 많이 만들었고, 버디로 이어진 퍼트가 많아 좋은 경기를 했다. 물론, 아쉬운 버디 퍼트들도 있었는데, 내일은 들어갔으면 좋겠다.

**Q. 코스는 어땠는지?**

2~3년 차에 이곳에서 전지훈련을 했는데, 계절은 다르지만 한번 경험해 본 곳이라서 익숙하다. 페어웨이가 넓고 그린이 잘 받아줘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했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.

**Q. 기억에 남는 순간은?**

1라운드 5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쳤는데,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. 그 이후로는 홀 아웃 상황이나 짧은 거리에서 퍼트할 때 더 집중하려고 노력했다.

**Q. 시즌 2승을 노리고 있다. 각오는?**

전반적으로 몸 상태는 좋지만 아직 3,4라운드가 남아 있고 선두권 선수들의 스코어도 많이 두텁기 때문에, 남은 라운드에서도 집중해 일단 버디를 많이 기록하겠다.

**◈ 이세희 2라운드 중간합계 11언더파 133타(64-69) 단독 4위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652>

**Q. 오늘 경기 소감은?**

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실수 없이, 보기 없이 플레이해서 만족한다. 특히, 버디가 안 나오거나 어제만큼 원하는 샷이 나오지 않을 때 아쉬운 마음도 들었는데, 최대한 인내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했던 점이 오늘도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다.

**Q. 오늘 경기 중점을 둔 부분은?**

어제는 퍼트가 잘 됐지만 샷이 불안했다. 그래서 오늘은 샷감을 찾기 위해 리듬과 템포에 집중했다.

퍼트는 오히려 어제보다 잘되지 않았지만, 억지로 잘하려고 하지 않고 편하게 치려고 했다.

**Q. 몸 상태는 어떤가?**

좋은 편은 아니어서, 피지오 케어를 받으며 관리할 예정이다. 푹 쉬면서 마지막까지 컨디션을 잘 유지하겠다.

**Q. 이번 대회를 대하는 마음가짐은?**

이제 2라운드가 끝났기 때문에 너무 들뜨지 않으려 한다. 이전에도 1, 2라운드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3, 4라운드에서 성적이 떨어진 경험이 있는데, 그때를 돌이켜보면 너무 잘하려고 하거나 긴장하면서 스스로 압박을 많이 줬던 것 같다.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편안하게 치고, 컨디션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.